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

‘1만 시간, 10년의 법칙’이 있다. 이 이론을 발표한 스웨덴의 스톡홀름대학교 에릭슨 교수는 음악 아카데미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세계적인 연주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최상급 학생들과 다음 단계인 상급 음악교사를 꿈꾸는 보통급 학생들의 차이에 관한 연구였다. 그 결과 4000시간 연습한 학생은 음악교사 수준, 8000시간 연습한 학생은 훌륭한 연주자 수준, 1만 시간 연습한 학생은 유명한 연주자가 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와 성취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일관성은 꾸준함, 성실, 인내 등의 단어와 유사하다. 일관성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뜻이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서로 신뢰하는 사회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다만 예측 가능한 일관성이어야 한다. 신뢰의 근거

조직의 일관성

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일관성 없이 수시로 바뀐다면 구성원들은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두렵고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이를 때일수록 일관성의 언어로 구성원을 이끌어야 한다.

잘못된 고집이나 불통이 아니어야 한다. 잘못된 일관성은 조직을 망가뜨린다. 일관성이란 긍정적이고 조직에 유익한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철학과 신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직을 이끌어 감에 있어 어떤 원칙에 대해 바꾸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구성원들은 조직의 일관성 있는 리더를 신뢰하고 따른다. 일관성은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힘이고 구성원들에게 예측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신뢰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일관성은 무조건 결정된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솔직한 언어에 휩쓸려 결정을 번복하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주게 된다. 리더는 자기 조직의 업무 가치를 파악하고 구성원들과 이것을 공유하고 실천해야 한다. 업무 가치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명확히 규정해 그것을 따르도록 돕는 것이다.

조직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데, 일할 때 중시하는 가치가 다른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개발과 보존, 도전과 포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대립하게 된다. 조직이 중시하는 업무 가치를 명확히 하지 않는 상황

에서 서로 다른 업무 가치를 가진 구성원끼리 함께 일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런 업무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예측 가능하게 구성원을 이끌어야 한다. 업무 가치는 갈등과 논란을 줄이고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행동의 일관성이 생기도록 만든다.

우리는 일관성과 완고함을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완고한 사람은 일관성을 지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시도하려다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일관성은 결코 완고하지 않다. 변화하는 환경에 자신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러나 굽힐 수 없는 기본 원칙에 관해서는 굳건한 사람이다.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추어도 일관성이 부족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일관성은 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을 주며 신뢰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언어이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일관성의 언어를 가진 사람과 조직은 모진 풍파가 닥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일관성은 개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 특히 행정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이력저런 압력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러한 일관성으로 인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펼쳐지게 되니 도시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꿈꾸는 2040

2022년 주먹밥은 어떤 맛으로 만들까



정준호
국민의힘 원내총무

2021년 41주년 5·18기념식이 마무리되고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이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 해처럼 유수의 정치인들이 찾지는 않았지만, 올해 5·18은 단연 유족회의 보수정당 의원들 초대가 화제가 되었다. 법안 통과에 진정성을 보였던 성일종 의원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의 광주 방문은 다른 지역 국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송정역에서 깜짝 주먹밥 미팅을 했다. 이제는 연대의 상징이 된 주먹밥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무릎을 맞대고 함께 하는 모습 또한 다른 지역 국민들에게 깊게 각인됐다.

5월 16일에는 양동시장에서 당시 어머니들이 직접 41년 전 주먹밥의 원형을 복원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41년 전에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다. 밥과 소금과 김이 전부였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군부 몰래 삼키던 주먹밥에 별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당시 광주에서 구할 수 있는 주먹밥 재료가 없었던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식사를 한 송정역 주먹밥은 멸치와 참치를 넣어서 만든 것이다. 역시 누구라도 집에 있는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다.

멸치와 참치 그리고 밥과 소금만으로 41년 전의 나눔과 연대의 상황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음식이 된 주먹밥. 보수정당과도 함께 나누고 체험하는 음식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떤 주먹밥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인전 인하대 후문에는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스펀지밥이 있다. 대학생들이 좋아한다니 2022년 주먹밥에는 스펀지 넣어 보면 어떨까. 경상도 거제 장승포에서는 오돌뼈를 넣어 만든 주먹밥이 인기라고 하니 내년 5·18 기념식에 찾아오는 영남분들에게는 오돌뼈 주먹밥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기가 원래부터 주먹밥은 독립운동 시절에도 나누어 먹던 것이기도 했으니 어떤 메뉴로 만들어도 5·18 당시의 나눔과 연대의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뭐가 대수랴.

보수정당과도 나누어 먹게 된 주먹밥이 이제는 전 국민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음식이 되길 희망한다.

마침 202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처음으로 광주를 찾게 될 것이다. 민주당 출신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 출신의 당선인이 온다면 이제 5·18 주먹밥은 모든 지역 국민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으니 당선인도 주먹밥 정신으로 온 국민의 화합과 나눔 그리고 연대를 꿈꿔 달라고 주문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출신이 아니라도 광주에서 맛보는 주먹밥은 41년 전 서슬퍼런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공감과 소통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니 보수의 가치가 공감과 소통 그리고 나눔과 연대의 가치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주 안의 반목이 남아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5월 단체들의 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나 과거 국민의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친 뒤의 앙금이 있다면 양측의 입맛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주먹밥을 만들어 해소하기를 바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평가가리와 갖은 공격이 난무할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선 직후의 5·18 기념식은 전 국민의 갈라진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추스르고 공감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내년 5·18 주먹밥을 어떻게 만들지 한 번쯤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필의 향기

세트 메뉴 인생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

팀을 짜는데 쉽지 않았다. 경기에서 지고 싶은 사람은 없나 보다. 친목 경기임에도 잘하는 사람과 팀을 이루려고 했다.

라운딩을 끝내고 승진한 친구가 한턱내겠다고 해서 식당으로 향했다. 세트 메뉴를 시켰다. 압박한 상술이라고 하는 이도 있었지만, 다수의 입맛을 고려했다. 다양한 음식이 시차를 두고 나왔다. 나오는 종류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있었다. 탕수육이 나오자 돼지고기를 못 먹는 친구는 상을 짜꾸렸고, 생선을 잘 먹지 않은 나는 새우에 젓가락을 내밀지 않았다. 골라 먹는다고는 했지만, 친구가 내 입에 싫어하는 음식을 밀어 넣어줄 때는 속이 개운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트 메뉴는 어느 것은 버리고 어느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 경기도 공격과 수비가 하나의 세트였다. 불리하다고 나만 두 번 치거나 우리 팀만 선수를 더 많이 기용할 수도 없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나면 헤어지듯 우리 삶 곳곳이 세트이다. 김과 간장, 상추와 된장, 국과 밥이 짝을 이룬 밥상 같다. 젓가락과 숟가락도 한 세트이고 젓가락에는 김치, 숟가락에는 국이 일종의 세트로 묶여 있다. 배가 고프고 본 사람만이 포만감을 느끼고, 배부른 이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맛을 모른다. 허기와 포만도 세트다.

일상생활도 대부분 묶음이다. 자고 일어나는 것과 출근과 퇴근이 그렇고, 말하기와 듣기나 먹는 것과 배설도 세트이다. 만남과 이별, 사랑과 증오, 눈물과 웃음이 그렇고 행과 불행, 승과 패, 기쁨과 슬픔이 그러하며 무엇보다 삶과 죽음의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어서 어느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선택할 수 없다.

꽃이 피고 지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 낮과 밤의 순환도 세트이다. 매일 웃을 일고 벗는 일이며, 버스를 타고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아파트 오르내리기 역시 세트이다. 두 눈과 두 귀, 두 팔과 다리 역시 한 세트로 움직인다.

우리 내면에도 많은 세트가 들어있어서 선과 악, 미와 추, 사랑과 증오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버려야 해서 어느 시인은 저쪽 길을 '가지 못한 길'이라고 아쉬워한 것처럼 잘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되, 잘못 선택한 것에 미련과 후회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이기도 하다.

친구가 승진할 수 있었던 것도 앞 사람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그도 자리를 비우고 스스로 하산하지 않으면 절벽에서 떠밀릴 것이다. 나이감과 물러섬은 한 묶음으로서 그도 녀석들과 함께 지금의 자리에 있을 날이 실은 멀지 않다.

삶이 세트라고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수많은 시간, 밤과 낮, 그리고 수많은 계절이 주어진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더 많은 행복, 더 좋은 이별, 더 나은 즐거움과 웃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인생 메뉴이다.

무엇보다 내가 상대의 가장 빛나고 좋은 짝이 되어 주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도 없다. 잘 사는 부부가 그렇다. 상대를 낮추거나 힘겨 보여 자기도 함께 낮아지며 밉모이고, 상대를 떠받치고 예쁘게 보면 자신도 당당히 높아지고 예뻐 보이는 것이 세트의 특성이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아름다운 쪽에, 웃는 쪽에, 행복한 분야에, 착한 부류에 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잘 살면 잘 죽는다. 한 조각, 한 치도 허투루 선택하지 않고 최선의 조합을 세트로 만들어 가며 사는 것이 좋다. 내 삶이 빛날 때, 죽음은 더욱 빛이 난다. 내가 진실로 삶을 사랑했을 때 시련도 문제 될 것 없고, 죽음도 당당하게 맞이한다.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세트가 밝은 쪽,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생의 세트를 만들어 나가는 길. 그것은 운명이나 선택이 아니라 노력에 달려 있다.

社說

경도 개발 미래에셋 사회적 책임 저버려서야

여수 경도에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던 미래에셋이 돌연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식의 '사업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익 창출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대기업답게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도 빚발치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 지역 시민단체 등은 "미래에셋이 관광시설은 뒷전이고 수익성 높은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투자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전남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도 미래에셋이 신청한 최고 29층짜리 레지던스 건립에 대해 경도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재검토 의견을 냈다. "숙박시설 건립이 부동산 투기로 비쳐져 억울하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최근 김영록 전남 지사는 "미래에셋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민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지사는 여수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미래에셋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실현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도 주민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에셋은 다시 돌아와 관광단지 개발에 전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미래에셋으로서의 사업 방식에 대한 지역민들의 문제 제기가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업 재검토'로 맞서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겁박 관심의위원회도 미래에셋이 신청한 최고 29층짜리 레지던스 건립에 대해 경도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재검토 의견을 냈다. "숙박시설 건립이 부동산 투기로 비쳐져 억울하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그런 만큼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지역 사회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남도 역시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안 '부동산 열풍' 투기 여부 철저히 조사

신안 지역에 부는 부동산 열풍이 심상치 않다. 당장 땅값이 오를 가운데 거래건수도 급증했다. 이 지역 토지 거래량은 2019년 3642건에서 지난해 4308건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영향으로 지난 5월 신안군의 개별공시지가도 9.77%나 올랐다. 최근 3년 간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평균 5%대(2018년 5.66%→2019년 4.38%→2020년 4.81%)에 비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외지 투자자들의 문의도 빚발치고 있는 등 부동산 투자자들의 눈이 신안으로 쏠리고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국내 여행 증가와 함께 섬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유명 섬 주변 땅은 외지 투자자들에게 넘어갔다는 말도 들려온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계에서는 군과 도의 관광개발 계획까지 더해지면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자은도의 경우 지난 2018년 말 3.3㎡당 20만 원 수준이던 매매가가 무려 80만 원까지 급등했다. 그럼에도 외지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매물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 미리 목 좋은 땅을 사들인 신안의 한 의원을 부동산투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입건했다. 이 의원은 수십억 원대 대출을 받아 압해도에 있는 땅을 사들였는데 현재 세 배 이상 뛰었다고 한다. 개발 정보를 입수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도권에 국한한 것도 아님을 보여 주는 사례다.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투기 세력들을 색출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 내야 한다.

無等鼓

요즘 고위 공무원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고사성어(故事成語) 사용이 크게 늘었다. 복잡미묘한 상황을 단 몇 글자로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일 것이다. 한때 최근엔 다소 어려운 고사성어가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월 여당이 제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지지지지(知止不止)"라는 말을 썼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데 "그침을 알고, 그침 데 그친다"는 뜻이다. 하지만 웬만큼 학식 있는 이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말이다. 이날은 전 더불어

할 때 사용되곤 하는 말이다. 하지만 추가 설명이 없다면 알아듣기 어려운 성어다.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관리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고사성어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일 터. 따라서 '좋다' 혹은 '나쁘다' 같은 가치 판단을 내릴 사안 아니다. 하지만 지금 '신에 대 중진' 간 마찰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고사성어가 신조어에 익숙한 젊은 층에 낯설어 보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정세균 전 총리가 말한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엄격한 차례가 있음)나 홍준표 의원의 '신구미월령(新鵲未越嶽: 어린 비둘기는 험한 고개를 넘지 못한다)이 양세력 간 갈등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생각은 단어로 이루어진다. 서로에게 낯설거나 상대가 기피하는 단어로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결국엔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마찰할 수밖에 없다. 중진과 신에 모두 건전한 세대 경쟁에 나서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2-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